

발행인 | 이병호 편집 |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제 1809호

주소 | 560-912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전화 | (063)285-0041 팩스 | (063)283-9365 http://j catholic.or.kr E-mail | catholic14@hanmail.net

강론 ...

제41차 홍보주일을 맞아 - 미디어의 힘



서석희 신부
(홍보국장)

1. 영화 <베켓(Becket, 1964)>은 영국의 왕, 헨리 2세와 그의 술친구 토머스 베켓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헨리 2세는 여자들과 즐기고 전쟁을 일으키고 세금을 물리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독립적인 권위를 지닌 영국 교회의 지도자인 대주교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대주교는 자주 이러한 헨리 2세의 계획을 좌절시켰기 때문입니다. 헨리 2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술, 여자, 가무' 친구인 토머스를 대주교로 임명하는 기발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대주교로 임명된 토마스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소명, 즉 '하느님의 종이 되라는 부르심'의 소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왕이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헨리 2세는 그의 친구가 대주교직을 적당히 수행하면서 옛 친구의 바람을 들어주도록 그를 누누이 설득했으나, 이제 하느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토마스 베켓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던 토마스는 영국의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왕이 보낸 암살자들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2. <영화와 영성>이란 책의 저자인 미국의 로버트 존스톤이란 목사는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베켓> 영화를 보면서 하느님께서 자신을 목회자로 부르시는 소명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과는 무관한 '특별한 영역에 존재하는 거룩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베켓> 영화를 보고나서 "내가 거룩할 필요는 없다. 토마스도 거룩하지 않

았다. 너 다만 내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에 그도 토마스처럼 "하느님, 제 전부를 다해 충성하겠습니다."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일반 알현 중, '사도들과 첫 제자들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하시며, "이것이 제게 큰 위안을 줍니다. 성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고 죄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평화신문 2007년 2월 18일자)"라고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합니다. 교황님의 이 말씀에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갈채가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도 부족하지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켓>이란 영화를 보고 소명에 응답한 목사나 교황님의 말씀은 분명 다른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로버트 존스톤 목사는 자신처럼 영화, <베켓>을 보고 소명에 응답한 베네딕토 수도회 신부를 소개하면서, 은근히 '영화가 지닌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미디어를 통해 창출되는 영화, 드라마, 그리고 이미지들을 단순히 오락으로 생각하는 경향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자신이 본 것을 우리의 그리스도교 신앙, 특히 우리의 신학과 영성에 연결시키려고 대화하는 노력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제 41차 홍보주일을 맞이해서 교황님께서서는 <교육의 과제인 어린이와 미디어>란 주제로 우리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들 안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주길 당부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모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핵심인 인간 존엄의 전망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나눌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녀 마리아 도미니카 마자렐로(1837-1881)

윤 클레멘트 신부
교구청 사무처

그녀는 성 돈 보스코(1815-1888)와 함께 하느님의 선택된 도구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신 성모 마리아의 딸들인 살레시오 수녀회의 공동 창설자이다. 돈 보스코의 꿈은 젊은이들에게 하느님 사랑의 체험을 가르치고, 그 젊은이들의 마음에 하느님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꿈을 실천해가면서 온 생애를 소년들과 함께 산다. 돈 보스코의 하느님 사랑에 대한 꿈을 소녀들에게 가르치고 실천하게 했던 사람이 마리아 도미니카 마자렐로였다.

그녀는 이탈리아의 알렉산드리아 모니스에서 5월 9일에 태어나는데, 그녀가 세상을 떠난 것도 5월의 14일이었다. 그녀는 일곱 남매 중에서 맏이로 태어나는데, 그녀의 부모는 매우 신실하고 신심이 깊고 아주 근면한 농부였다.

그녀는 열다섯이 되던 해에,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동정서원을 한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원죄없으신 마리아협회에 가입하고 자신을 사랑과 사도적 봉사에 봉헌하기로 결심을 한다.

그녀는 열일곱이 되던 해인 1864년에 소녀들을 위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있던 돈 보스코를 만난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이 두 지도자의 만남은 그 후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신 성모 마리아의 딸들인 살레시오 수녀회를 시작하기에 이른다. 그녀는 서른다섯이 되던 해인



1872년에는 돈 보스코와 함께 시작한 자신의 수녀회에서 수도서원을 하고 공동체의 원장이 된다.

소년 소녀들을 위한 돈 보스코와 마리아 도미니카 마자렐로의 삶과 헌신은 당시의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반향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는 젊은 소년과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녀는 소녀들과 처녀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수도원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활력자로서의 그녀의 모범은 젊은 여성들에게 강한 매력을 불러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수도회에 호감을 느끼게 한다. 많은 여성들이 수도회에 들어오고, 그 수도자들을 통한 선교는 하느님의 말씀이 세상 곳곳까지 전파되게 한다.

세상의 방방곡곡(坊坊曲曲)으로 퍼져간 그녀의 제자들과 수도자들은 적지 않은 도전과 시련을 겪고 만나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과 그들의 헌신적인 삶과 선교는 그들의 발길이 닿고 머무는 곳마다 젊은 여성들을 위한 학교와 센터를 세우고 운영하기에 이른다.

그녀는 마흔넷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데, 그 때 그녀는 아스티에 있는 니자 몬페라트의 새로운 모원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난지 70년 후인 1951년 6월 24일에 교황 비오 12세에 의하여 성녀품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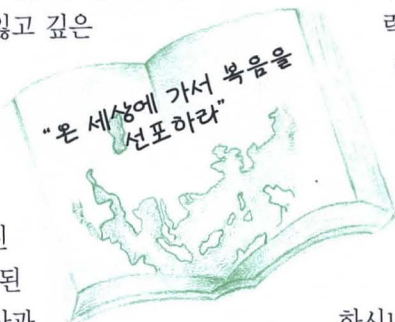


밝고 환한 복음의 빛깔

지난 4월, 때마침 부활절에 맞추어 온 산과 들이 피어나기 시작하였다. 검회색으로 마르고 죽어있던 거대한 산야가 파릇 파릇 새잎이 돋아나더니 연두색 물감으로 붓칠을 한 듯이 산전체가 황홀하게 물들어 버렸다. 5월이 되면서는 갖가지 꽃들의 향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움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생명은 이런 것이란다” 하고 부활을 웅변적으로 선포하는 듯 하다. 우리 주변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이루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언제나 감동을 준다. 오랜 기간 세례준비를 하여 부활절에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깊은 슬픔 중에 울지 마라 하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위로로 만난 이들, 굳게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열고 화해와 용서를 나누게 된 이들, 이렇게 멋진 부활선물을 받고 내적으로 변화된 이들 안에 용솟음치는 기쁨은 산과 들의 아름다움을 능가하는 더욱 힘찬 부활의 증언이 아니겠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은 그 부활의 증언을 계속하라는 말씀이다. 제자들이 용기백배하여 예수님의 일을 했듯이 오늘



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시대를 표현하는 최첨단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을 선포해야한다는 뜻으로 교회



박문희 수녀
(바오로딸 전주분원)

는 예수 승천주일을 세계홍보 주일로 정하였다. 매일 저녁 뉴스를 장식하는 어둡고 죄스러운 사건들이 어떻게 발단이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신문 잡지 영화를 통하여 범죄를 보고 배우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현실을 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힘으로 변식해가는 악의 세력 앞에 무력함마저 느끼게 된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모든 민족들을 내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맡겨 주신 사명을 열심히 행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러노라면 어느새 산과 들이 변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밝고 환한 복음의 빛깔로 물들어 가지 않을까.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새 생명의 삶으로 선포하는 복음이 우리 주위를 밝혀주고 기쁨이 약동하는 지구촌이 되기를 빌어본다.

입당송 사도 1:1

갈릴래야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1:1-11

화답송 시편 47(46), 2-3, 6-7, 8-9(◎ 6)

◎ 하느님께서 환호 소리와 함께 오르시도다.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르시도다.

제2독서 에페 1:17-23(또는 히브 9:24-28; 10:19-2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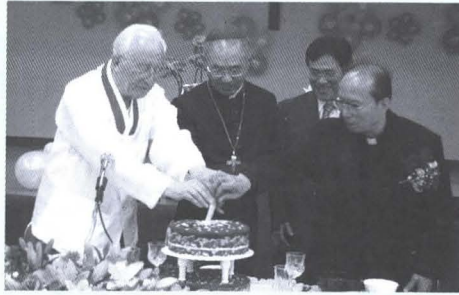
복음 루카 24:46-53

영성체송 마태 28:20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윤에릭, 김치삼 신부 금경축 행사

윤에릭(에릭)신부와 김치삼(스테파노)신부의 사제수품 50주년을 축하하는 금경축 행사가 5월 10일(목) 오전 10시 30분 중앙 성당에서 교구 평협(회장=서동호) 주최로 베풀어졌다.



교구장 이병호 주교 주례와 사제단 합동으로 봉헌한 축하미사와 축하식, 축하연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김치삼 신부 동기인 대구대교구 최봉도 신부를 비롯한 동기 사제들과 교구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7백여 명이 함께 했다.

축하미사 후 축하곡 연주와 선물 증정식, 성서 형제회원들의 율동 등으로 진행된 축하식에서 김치삼 신부는 신학생 시절 6·25 전쟁으로 명동 바오로 수녀원에서 숨어 있다가 인민군 내무서원에게 끌려가 죽음직전까지

갔던 일화를 소개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들려온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아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모두 성구 한 구절을 선택해 그렇게 할 것을 권유하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소풍가는 기분으로 즐겁고 기쁘게 살겠다”고 답사를 통해 말했다.

윤 에릭 신부는 서품 받기 전부터 왜관 수도원의 초청을 받았지만 몇 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올 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소개하고 “나이가 들수록 감사할 것이 많아지는 것 같다”며 “전주교구와 수녀원에서 항상 따뜻한 대접을 받았는데 오늘 또한 큰 대접을 받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관영 기자

● 만경 성당 성모의 밤 행사

지난 5월 10일(목) 만경 성당(주임=백수현신부)은 성모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성모성심꾸리아(단장=임태섭)가 주관한 이 행사에서 은빛 날개 드리운 천상은총의 어머니를 찬양하였다. 목주기도로 장미 한다발을 바치고 15세이하 청소년으로 구성된 바다의 별 브레시디움의 사물연주가 눈길을 끌었다.

최진순 기자

● 소룡동 성당 바자회

소룡동 성당(주임=이명재 신부)은 성전건축을 위한 먹거리 잔치 및 바자회가 지난 5월 10일에서 13일까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군산지구 각 분당의 2차헌금은 물론 사목

회로 구성된 도우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아래 이뤄졌으며, 군산지구 사목회에서 조별로 도우미를 편성하여 설거지, 서빙 등을 지원하였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등 정겨운 나눔 잔치가 되었다.

권윤달 기자

● 신동 성당 범운스님 초청 강연회

지난 5월 13일(주일) 신동 성당(주임=이사정 신부)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서울 관악구 약수사의 범운스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교중미사 중에 가졌다. 범운 스님은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싫어서 반응하는 내 마음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다. 지나간 과거의 기억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행하고

조상님을 영구보존으로 모시는孝 실천
진공 주석 유골함 / 망인 초상 금속사진
(주)도남
이진호(실베스텔)
문의 : 063-282-0138, 018-231-8181

AIG 생명보험
믿고 신뢰하시면
최선의 보답을 해드립니다.
이완기(빈첸시오)
☎ 상담 : 019-9770-2468
212-9339

대정항문병 전문병원
장문외과
치질·변비·유방크리닉
전문의 최성영(루가)
전문의 안해선(사도요한)
전문의 이철중
www.jangmun.com
대표전화 ☎(063)834-6000
익산 영동동 육교 밑

최고의 전국 꽃배달서비스
진선미 꽃집
범근배(방지거)·박선지(루시아)
중화산동 비상경기장~도청사이
☎ 222-0004

새롬 리모델링
리모델링 / 씽크대 제조 전문업체
김영대(가브리엘)
☎ 063)275-9236~7
011-294-6471

유* 사랑외과
유방 전문 클리닉
유방암 검진
원장 소우성(스테파노)
서신동 E마트앞
☎(063)253-6075

일본 성지순례 5일 459,000원
(부산왕복 교통비 3만 원 별도)
여행지 : 후쿠오카-하루스텐보스-나가사키-운젠-구마모토점
일정 : 6월17일~21일, 마강 6월7일(혜리호로 왕복)
문의 : 232-9200, FAX 232-5200
대표 : 박요안(요한) 016-622-8654
국민여행사

유네스코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한
여행지 : 운대산과 대 황하 4박 5일 579,000원
(인천공항 리무진버스비외, 모든경비 포함)
일정 : 6월14일~18일, 마강 6월 5일
(왕복 전세기이용)
문의 : 232-9200, FAX 232-5200
대표 : 박요안(요한) 016-622-8654
국민여행사



괴롭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이다. 늘 머무는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을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마음을 뽐으로써, 지금 사는 상태가 천국처럼 되도록 만드십시오.”라고 강조하였다. |손희정 기재

● 가톨릭 전복 문우회 시낭송회

가톨릭 전복문우회(지도=홍보국장 서석희 신부, 회장=이형규)는 지난 5월 12일(토) 고창 미당 시문학관에서 시낭송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복문협 진동규 회장을 비롯한 여러 초대 손님과 30여명의 문우회원들이 함께 했다. 시 낭송회에 앞서 오전에는 축축히 내리는 봄비 속에서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와 최여겸 순교지, 정지용 시비, 청보리밭 등을 둘러본 후 미당 시문학관에서 회원들의 자작시와 애창시가 낭송되었으며, 작은 국악공연도 어우러진 뜻 깊은 시간이었다. |김동욱 기재

● 레지오마리에 간부 1단계 교육

전주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단장=강상근)는 중앙 성당(주임=김동준 신부)과 오흥동 성당(주임=이수현 신부)에서 약 260여명의 간부 예정자 및 새 간부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2일(토)부터 4주간에 걸쳐 레지오마리에 1단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레지오 단원의 기도생활(신태용 교수), 레지오 단원과 그리스도 신비체(김선태 신부), 레지오 마리아와 평신도 사도직(김광태 지도신부), 주회합의 방법, 회계 및 문서 관리(레지아 4간부)’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6월 2일(토)에는 종강 미사와 수료식이 거행되어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길용운기재

● 영등동 성당 성전 보수공사 기금 마련 바자회

영등동 성당(주임=박진량 신부)은 지난 5월 11일(금) 바자회를 열었다. 이번 바자회는 오래되고 낙후된 성당의 보수 공사에 따른 기금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한 달 전부터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준비와 본당을 사랑하는 신자들의 마음이 일치되어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조은아 기재

● 세계 순례 파티마 성모님 익산 방문

지난 5월 9일(수)에서 11일(금)까지 익산지역을 방문하신 파티마의 성모님을 신동 성당(주임=이사정 신부)에 모시고 미사와 기도모임이 있었다. 매일 미사와 하루 4차례 열리는 기도모임에 익산지역의 각 본당 신자들이 찾아 들었으며, ‘화해하고, 보속하고, 기도하라’는 성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신자들은 밤늦은 시각까지 기도하며 신앙의 기쁨을 체험하였다. |손희정 기재

● 능다리 영성센터 신축을 위한 먹거리 장터

신태인 성당(주임=김봉술 신부)은 지난 5월 10일(목)부터 5월 13일(주일)까지 4일간 황토현전적지에서 동학축제 먹거리장터를 열었다. 능다리 영성센터 신축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하여 전신자가 한마음으로 참여한 이날 먹거리장터에서는 신자들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제공되었다. 특히 무공해 축을 직접 채취해서 정성껏 빚은 떡은 웰빙 식품으로 가장 인기가 좋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신자들이 일치를 이루고 지역주민과 친교를 이루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선숙 기재

● 전주교구청 직원 및 본당 사무장(원) 1차 피정

전주교구청 직원 및 사무장(원) 1차 피정(지도=이태신신부)이 5월 14일부터 2박 3일간 ‘말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라’란 주제로 나바위 피정의 집에서 있었다.

한편 2차 피정은 7월 2일(월)~4일(수)까지 사무처장 윤양호 신부의 지도로 이뤄진다. |기수도 기재

<p>강성호 피부과</p> <p>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비나)</p> <p>☎(063)255-8700</p> <p>롯데백화점 옆</p>	<p>젬인아트</p> <p>전진아(실비아)</p> <p>부부국가자격보석감정사 미국보석학회GIA 감정사</p> <p>☎(063)462-7777 / 018-648-7777</p>	<p>호성냉동</p> <p>· 에어콘 · 저온 창고 · 업소용 냉장고 · 에어커터 · 에어커텐 · 버섯재배 설치</p> <p>양태수(요양) · 김경남(마리아)</p> <p>☎(063)242-4959 H·P 011-659-8085</p>	<p>예수회 성소모임</p> <p>일시: 6월 2일(토) 16시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p> <p>장소: 예수회 본부(서강대 K관 뒤)</p> <p>주제: 다양한 성소이야기</p> <p>문의: 02)719-1803, 011-9728-1803</p> <p>대상: 고등학생 이상</p>
<p>대학병원 처방 전문</p> <p>대 학 종 로 약 국</p> <p>약사 정귀진(요셉) 배석환(엘리아) 한종욱(크리스티나)</p> <p>전북대학병원 제2주차장 앞</p> <p>☎(063)274-5425, FAX274-5424</p>	<p>의료법인 영 의료재단(한방·양방 협진)</p> <p>익산호요양병원</p> <p>저렴한 요양비로 어르신들 내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p> <p>행정실장 송인호(파비아노)</p> <p>☎ 016-335-8175</p> <p>상담전화: (063)858-9998</p> <p>주소: 익산시 모현동1가 245-5</p>	<p>국내입양전문기관 (해성보육원)</p> <p>샬트르 성마로로 수녀회 운영</p> <p>신생아 및 연장아동 입양상담</p> <p>문의: 032-875-3240</p> <p>www.hschild.or.kr</p>	<p>젊은이 성화 LD 피정</p> <p>일시: 6월 2일(토)~3일(주일)</p> <p>장소: 대구 포교 베네딕도 수녀원</p> <p>문의: 011-519-3431 053)313-3431~4</p>



교구장 일정

- 인보성체수도회 종신서원 예정자 면담
5월 21일(월)
- 사목방문
5월 22일(화) 팔복동
5월 25일(금) 서일
- 성령강림 성령대회 미사
5월 22일(화) 오후 4시 오전
- 사제평의회
5월 23일(수) 오후 2시
- 교황베네딕토16세 즉위 2주년 기념
5월 23일(수) 오후 6시 교황대사관
- 교리교사의 날
5월 24일(목) 오후 3시 해월리
- 전국평협 상임위원회 미사 및 강의
5월 26일(토)
- 견진
5월 27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창인동

미사 · 행사 · 모임

- 교구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익산 월례미사
5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 교육국 자모회 월례미사
5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센터
- 사제평의회
5월 23일(수) 오후 2시 교구청
-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5월 24일(목) 오전 10시 덕진
- 교리교사의 날 행사
5월 24일(목) 해월리
- 희망콘서트5
5월 26일(토) 오후 6시 함열

- J.C.Y.A(전주교구 가톨릭학생연합회) MT
5월 26일(토)~27일(주일) 해월리
- 동전주하하회 미사
5월 27일(주일) 오후 2시 유아동

교육 · 피정 · 연수

- 레지오 단원 교육
5월 21일(월) 효자동
- 청년성서 여름연수 봉사자 피정
5월 26일(토)~27일(주일) 해월리
- 천호피정
5월 26일(토)~27일(주일)
- 전국평협 임원연수
5월 26일(토)~27일(주일) 센터
- 가정성화를 위한 계절 강좌(2차)
주제 : '나' 를 찾아서
대상 : 자기이해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강사 : 김정민 신부(가정사목)
일시 : 5월 22일, 29일 매주(화)
오전 10시~12시 30분
장소 : 센터 / 마감 : 5월 10일(목)
교육비 : 30,000원
접수 및 문의 : 가정사목부 285-0041
Fax 285-0049
- 부모 · 자녀 참만남(MBTI를 활용한)
6월 3일 오후 1시 30분(성격유형검사 있음)
10일, 17일(주일) 오후 2시
대상 : 청소년(중 · 고생) 자녀와 그부모
(부모자녀가 함께 참석)
내용 : 3일-성격 특성과 자기와 타인 이해
10일-부모 ·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
17일-부모 · 자녀 참만남을 위한 모색
강사 : 김정민신부와 청소년 전문상담가2인
참가비 : 2인 5만원 / 장소 : 센터
마감 : 5월 31일 / FAX : 285-0049
접수 및 문의 : 285-0041 가정사목부

-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피정
6월 8일(금) 오후 5시~10일(주일)
장소 : 해월리 피정의 집
강사 : 권민자 수녀, 나궁열 신부
참가비 : 7만원
교통편 : 6월 8일(금) 오후 4시
송천동 성당 출발
신청 : 5월 31일까지 송천동 성당
문의 : 016-9549-5151 김남신


교육 · 피정 · 연수

- 놀토에 떠나는 우리가족 체험학습-공예교실
일시 : 5월, 6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대상 : 초등학교(1~3) 자녀를 둔 10가족
장소 : 선녀머중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
참가비 : 무료(간식 준비)
문의 : 선착순 방문 및 접수
232-0334
- 전주 카리타스봉사단 교육(6월, 11월)
6월 2일(토)~3일(주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전주가톨릭신학원(윤호관)
회비 : 5,000원 / 마감 : 5월 29일(화)
접수처 :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284-5290, FAX 284-4855
e-mail : sarangdari.hanmail.net
※수료증은 11월 2차까지 교육을 이수하셔야
발급받습니다.

5월 좋은 영화 - 성 안토니오

• 일시 : 5월 23일(수) 오후 2시
• 장소 : 3층 강당 · 상영시간 : 101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성인 성 안토니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회교도인들조차도 추앙하는 안토니오 성인의 일대기를 영화한 작품!



전주교구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일시 : 5월 25일(금) 밤11시~새벽4시
장소 : 전동 성당
주관 : 전주교구 성령새신 봉사회

은 축 경

안찰문(이냐시오) 주임신부님
사제 서품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07년 6월 2일(토)
★축하미사 오전 11시 나운동 성당
(축하연 날 12시 30분)
나운동 성당 신자 일동

성령강림 성령대회
신앙생활의 쇄신

일시 : 5월 22일(화)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강사 : 임연기 신부
(미래내성지목상회집 원장)
미사 : 이병호 주교
장소 : 우전성당

소공동 성당 신축 바자회에
성원해 주신 교구 신부님들과
교우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소공동 성당 교우 일동 -

한국외방선교회 성소모임

일시 : 5월 27일(주일) 오후 2시~5시
장소 : 광주 가톨릭 센터
비고 : 내일의 선교사를 초대합니다.
문의 : 010-6269-1711
kmsvocation@daum.net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일시 : 5월 27일(주일) 오후 2시~5시
장소 : 광주 가톨릭센터 614호
문의 : 011-9319-1690
대상 :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30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주최 : 마신부님(Rev. Brendan MacHale)
초 · 중생 : 7월21일~8월19일
(3주, 4주) 427만원~
대학생 : 6월24일~8월12일(7주) 625만원
문의 : (주)그린피스 E&T 02-569-1331

성모영보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 5월 23일(주일)
장소 : 과천 본원
문의 : 011-9920-9423

김·정·고·부 지구 본당 소식

고 창

주임신부: 563-2552 사무실: 564-2044 주임신부: 김 의 철
유지월: 564-3529 수녀원: 564-6585 서목회장: 이 면 후
F A X: 563-1782

- ◎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 매일미사 후 묵주기도 바칩니다.
1. 예비신자 인도에 적극 동참합시다.
※ 예비신자 카드를 제대 앞 봉헌함에 넣어주세요.
 2. 효도관광: 29일(화) 대상65세 이상 - 신청 사무실
 3. 성가연습: 매주(수) 후7시50분 전신자 (미사곡 복음성가)-전신자
 4. 감사헌금: 김재환 20만원, 이인우 10만원, 이병연, 김양남 각5만원
 5. 금주모임: 애령회 - 미사 후, 대권회 - 25일(금) 후7시
 6. 다음주모임: 꾸리아 - 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355,000원 ■ 교무금: 2,188,000원

만 경

주임신부: 548-9995 사무실: 548-9911 주임신부: 백 수 현
F A X: 548-9911 서목회장: 최 병 순

- ◎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것이!(시편133,1)
◎ 5월동안 성모님의 마음을 잘 닦는 시간을 보냅니다.
1. 금주: 제대회-교중미사 후
 2. 차주 ① 꾸리아-교중미사 후
② 교리교사의 날 행사: 24일(목)-해럴리
 3. 특별헌금: 익명-699,580원, 강석갑-3만, 오정환-2만
 4. 금주: 해설-조미정, 독서-양해진, 이정숙
 5. 차주: 해설-최광식, 독서-조수근, 김영자
- 지난주 봉헌금: 432,270원 ■ 교무금: 55,000원

부 안

주임신부: 584-1331 사무실: 584-1333 주임신부: 김 원 중
유지월: 584-1004 수녀원: 584-1332 서목회장: 조 건 규
F A X: 581-1334

- ◎ 새 교구청사 신축헌금에 정성을 다합니다.
1. 모임안내 ① 제대회-교중미사 후
② 전례봉사자모임-24일(목) 저녁미사 후
③ 애령회모임-25일(금) 전11시
 2. 본당신부님 성지순례: 21일(월)->6월2일(토)까지
※ 성지순례 기간중 영육간 건강하실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3. 예비자를 인도합니다. 교리시간: 매주일요일오전9시
 4. 신축헌금 신앙누계: 222,148,000원, 입금누계: 200,141,270원
 5. 공소미사: 금주-돈지(전6시), 마포(후7시30분)
차주-공소미사없음
- 지난주 봉헌금: 1,442,090원 ■ 교무금: 1,360,000원

수 류

주임신부: 544-5653 사무실: 544-5652 주임신부: 원 중 현
유지월: 544-5654 서목회장: 손 용 현

- ◎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미사 전 묵주기도 바칩니다.
※ 기도지향과 함께 성모상 앞 초 봉헌 받습니다.
1. 2006년도 교무금 미납금 납부 바랍니다.
 2. 신부님 휴가: 5월 21일(월)~25일(금)
 3. 차주모임: 꾸리아
 4. 차주전례: 해설-문재현, 독서-조상선, 이금자, 봉헌 - 김명식부부
- 지난주 봉헌금: 443,600원 ■ 미사참례자 수: 175명

시기동

주임신부: 538-0092 사무실: 538-0091 주임신부: 경 규 봉
유지월: 532-5777 수녀원: 538-0093 서목회장: 이 세 용
F A X: 538-0094 홈페이지: http://www.sigdong.or.kr

- ◎ 가톨릭센터신축을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1. 유아세례: 5월 26일(토) 어린이 미사중(사무실에 신청)
 2. 파티마 성모님 순례: 5월21일(월)~23일(수) 오전 9:30부터
※ 월요일 새벽미사, 화요일 저녁미사는 오전 10시 미사로 변경.
 3. 성모의 밤 행사: 5/25(금) 오후 8시 대성당
 4. 감사헌금: 이재득, 익명 각 10만원, 고정순(프란치스카) 5만원
- 지난주 봉헌금: 1,446,800원 ■ 교무금: 1,992,000원
■ 신축기금: 899,000원

줄 포

주임신부: 581-0242 사무실: 581-0241 주임신부: 송 영 진
F A X: 581-0241 서목회장: 박 경 우

신 품

주임신부: 544-2272 사무실: 544-2271 주임신부: 이 동
F A X: 544-2281 수녀원: 544-2273 서목회장: 임 석 록

1. 금주모임: 연영회, 자모회
 2. 차주모임: 꾸리아, 한우리, 구역장회의(토)
 3. 공소미사: 신암
 4. 신품 산악회: 24일(목) 장흥 천관산 회비-일만원 점심 도시락 지참
※ 선착순 45명 회비내는 순으로 아침 6시 미사 봉헌하고 신부님과 같이 합니다.
 5. 성모의밤: 25일(금) 저녁 8시 미사와함께 개인 초 꽃 봉헌(판매)
성모님께 드리는 글(시)모집 ※ 아침 10시 미사 없음
- 지난주 봉헌금: 1,053,800원 ■ 교무금: 910,000원

신태인

주임신부: 571-8202 사무실: 571-8201 주임신부: 김 봉 술
F A X: 571-8208 수녀원: 571-8203 서목회장: 박 건 준

- ◎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흥보주일입니다.
◎ 황토현 축제 바자회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1. 성모의 밤 미사 및 행사: 31일(목) 후8시
 2. 공소미사: 태인-23일(수) 후7시 30분
 3. 교리교사의 날 행사: 24일(목) 후2시~후9시30분, 해럴리 피정의집
 4. 성당대청소: 27일(주일), 공소 운행차량은 1시간 빨리 출발합니다.
 5. 2차헌금: 차주는 애령회를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6. 금주전례: 해설-김진권, 독서-한정상, 김정길, 봉헌-서종수부부
- 지난주 봉헌금: 929,000원 ■ 교무금: 630,000원

연지동

주임신부: 538-0532 사무실: 538-0531 주임신부: 박 장 신
유지월: 538-0534 수녀원: 538-0533 서목회장: 진 용 철
본당 홈페이지 주소: http://www.yidsd.or.kr

- ◎ 소공동체 운동: 반모임 활성화에 전신자가 참여합니다.
1. 사목회: 5월 25일(금) 후7시 30분
 2. 성모의 밤 행사: 5월 28일(월) 후8시(당일 새벽미사는 없습니다.)
 3. 청년회 성서공부: 매주 토 후7시
 4. 중고 Bless 밴드 단원 모집: 문의 - 박혜영(010-2679-6060)
 5. 차주는 군인선교를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455,400원 ■ 교무금: 939,000원
■ 센터 신축헌금: 610,000원

요 촌

주임신부: 544-0152 사무실: 544-0151 주임신부: 박 중 현
유지월: 546-3788 수녀원: 544-0153 서목회장: 구 차 욱
본당 홈페이지 주소: http://www.yochon.org

1. 교중미사 후에 연영회, 재속심화가 있습니다.
 2. 금주모임 ① 23일(수) - 환우봉성체, 각 구역 남녀모임
② 24일(목) - 꼬미시움
③ 25일(금) - 제대회
 3. 신축헌금: 이상우 - 10만, 정영식 - 100만, 송기모 - 40만
- 지난주 봉헌금: 1,552,250원 ■ 교무금: 1,661,000원

원 평

주임신부: 543-0880 사무실: 543-0881 주임신부: 정 영 현
유지월: 543-4236 수녀원: 545-2843 서목회장: 임 정 현

- ◎ 매월 셋째주(금)는 성소후원회비와 교무금 납부주일입니다
※ 성소후원회비는 합동미사 관계로 다음주일(5/27)에 내어주시요
◎ 첫영성체 교리(5/22-6/8 매주 화, 수, 목, 금) 가 있으니 신자여러분
특히 첫영성체 대상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 구역미사(1,2구역, 5/25금, 오후7시)
1. 금주: 원평, 수류 합동미사
2. 차주: 구역장 월례회(교중미사 후), 성모의밤(5/31 오후7시30분)
환자 봉성체(6/1금)
3. 종합차운행 봉사자: 금주-박영민(요셉) 차주-유용산(바오로)
4. 금주전례: 해설-최석기 독서-오재천, 오전회 봉헌-이금래가족
- 지난주 봉헌금: 584,000원 ■ 교무금: 490,000원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7년 5월 12일 현재)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황등, 삼례, 장계, 옥봉, 만경, 둔율동, 진안, 소양, 영등소리, 대야, 금암동, 장수, 나바위, 고창, 오수, 조촌동
- 신축기금 배정액 90% 이상 납부한 본당 : 쌍교동, 신흥, 중앙, 나운2동, 수류, 오룡동, 원평, 숲정이, 나운동, 여산, 고산, 신태인
-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아동, 팔복, 용안, 순창, 서학동, 월명동, 우림, 신동, 무주, 서신동, 월명동, 영등동, 인후동, 우전, 덕진, 임실
-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임실, 소룡동, 봉동, 덕진, 금마, 우전, 팔마, 솔내, 함열, 노송동, 주현동, 효자동, 요촌, 부안, 송천동, 호성동
- 신축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본당 : 삼천동, 연지동, 미룡동, 용진, 화산동, 송학동

▶ 부처님 오신날에 불자들에게 보내는 경축 메시지(요약)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

1.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저는 교황청 종교간 대화평의회를 대표하여 전 세계 각지의 불교 공동체에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2. 그리스도인과 불자들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주 만나고 협력하며 다양한 계획들을 함께 추진해 가면서 서로를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풍요로운 종교 간 관계를 맺어가는 확실한 길입니다. 이는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깊게 해 주고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키워 줍니다.

3.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온 인류가 같은 기원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지상 순례의 목적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2007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에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주체가 되며, 자유로이 자신을 내어 주고 다른 사람들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2항).

4.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존엄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같은 담화, 3항)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른 이들과 다른 민족의 믿음에 대해 배움으로써 편견과 오해를 극복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슬픈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종교 지도자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올라 날마다 전쟁의 참상이 벌어지는 곳에서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귀를 기울이며 참회하고 용서하는 자리와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 우리가 함께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5. 평화 교육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존중, 수용, 연민, 평등을 강화하는 가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실제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성숙합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공립뿐만 아니라 종교 재단에서 설립한 학교에서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한 것과 참된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는 어렵지만 보람된 일을 하는 부모들을 지지하고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의 정신을 형성하는 미디어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미디어의 무책임한 요소들이 점점 더 많이 확인되고 있지만, 미디어는 또한 질적으로 우수한 작품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더 많은 선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적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면, 무지를 없애고 지식을 전해주고, 사회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의 영적 본성에서 나오는 초월적 차원의 생명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참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는 분열된 인류를 위해 봉사하도록 이끕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우리 사회와 세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거행하는 이 축제에 진심어린 축하의 인사로 동참합니다. 다시 한 번 기쁜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폴 조세프 장 푸파르 추기경 사무총장 피에르 루이지 첼라타 대주교